

강간·폭행... 총선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87명중 38명 전과기록 1인 8건까지 ... 광주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87명 중 43%인 38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4~8건에 달하고,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장당한 뒤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는 한 정당인 경우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여·야 예비후보는 87명이며 이중 38명이 전과기록이 있

었다.

학생운동가 출신 예비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많았다.

대다수 '운동권 예비 후보'는 특별사면 복권됐지만, 민주당 후보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농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보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을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부 후보들의 전과기록이 공천 과정의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의 한 야당 예비후보는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야간공동상해(150만원), 공동상해(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200만원), 상해(100만원), 상해(300만원), 음주운전(350만원), 무면허운전(150만원) 등 8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등록했다.

전남지역의 또다른 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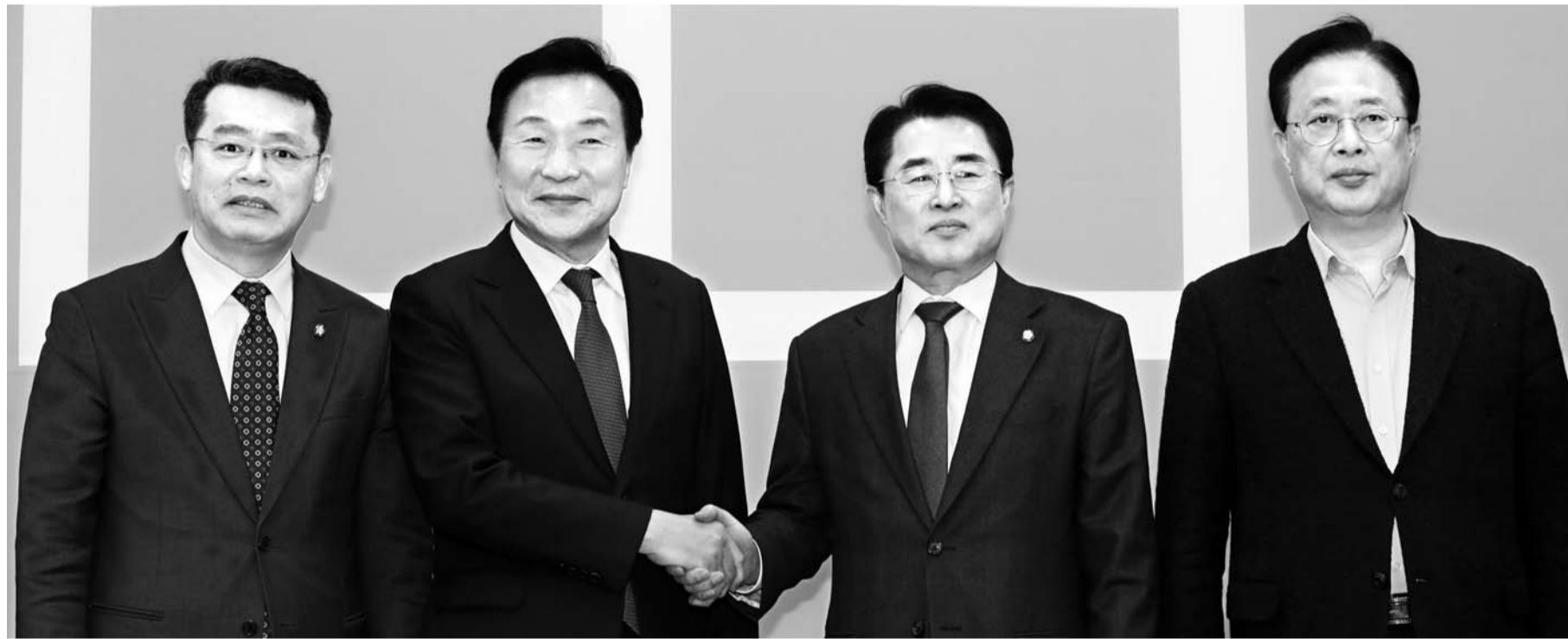
일부 예비후보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산증계업법위반, 식

품위생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본인의 직업·직장 관련 전과기록이 있었다. 또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20명이었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예비후보도 5명이나 있었다.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를 대거 등록하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유독 많았다. 이 정당은 2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신고한 예비후보도 많아 '비례대표를 노린 무분별한 출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안신당 지도부, 바른미래 방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제3세력 통합 나서자"

대안신당 지도부, 평화당·바른미래 예방

대안신당은 16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실 연휴(24~27일) 전 라운드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며 제3세력 통합에 나선 것을 호소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직전 진정'이었던 평화당 정동영 대표, 옛 국민의당에서 한솔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취임 인사차 잇달아 예방했다.

최 대표는 정 대표를 찾아 "대안신당과 평화당이 거대야당의 패싸움 정치, 적대적 공생 정치를 비판해왔지만, 국민들은 뿔뿔이 흩어진 중도개혁 세력의 분열에 대해서도 절타하고 있다"며 "아픈 기억과 양극을

탈어내고 정치적 결단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평화당 지도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설 전에 국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신당의 제안에 대해 정 대표가 '논의를 해보고 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방문한 최 대표는 "4년 전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국민의당이 지금 하나로 뭉쳐있으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겠나"며 "다당제 합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건강하고 든든한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안철수 19일 귀국... 거취에 쏠린 눈

1년4개월만에 정계 복귀... 3지대 통합·신당 창당 행보 관심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16일 김도진 전 비서실장 등 안 전 의원의 측핵심 관계자들이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오는 19일 귀국하며 주변 인사들과 만나 향후 정치 행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는 1년 4개월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통합 논의가 분계도에 오른 상황에서 안 전 의원이 귀국 후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은 지난 14일 "정치개혁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세력 통합'보다는 '가치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하며 '새정치 바람'을 불려온 안 전 의원은 이번에도 정치 리더십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화두로 던진 상태다. 따라서 안 전 의원이 귀국 이후, 바른미래당을 접수하거나 호남을 뿌리로 둔 보수 야당들과의 통합에 나서기 보다는 '새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이병훈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상생대책 필요"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사회의 상생노력과 적극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의 존엄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와 일자리 창출, 정신건



강 등 '일석삼조'의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경제연구원 소 발표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에 5조 81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치인들 사회적 약자 배려 자세 절실"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김성환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럽다"며 "국회의원이며 공당의 대표의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언



행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당과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엽 "광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김주엽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주 정치는 30년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를 바꾸려고 광주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당을 선택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하지만 국민의당은



광주의 기대와 지지를 저버리고 자멸해 광주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삼석 "디지털 신경제지도로 광주 경제 살릴 것"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 서구를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상임위원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 정책 전문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배웠다"며 "디지털 정책 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고향 광주의 '디지털 신경



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광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와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와 전남의 인터넷 기업을 모두 포함한 '인터넷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ICT 대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2,3,4학년 모집학과별 약인명씩 모집한다. 유아교육과 제외
* 한국어교육학과는 2학년 편입생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모집함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6(월) ~ 17(금)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Passion Vision Truth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